



第 6 部

로타리코리아 잡지 40년 主要記事 - 추억의記事·奉仕活動

- 1 ● 한국로-타리月報
- 1960년 3월~1961년 6월
- 2 ● 한국地區月報(DISTRICT NEWS)
- 1962년 7월~1963년 6월
- 3 ● 로타리코리아 創刊
- 1963년 10월~1980년 12월
- 4 ● 로타리코리아 公式地域雜誌 承認
- 1981년 1월~2003년 12월



창간 40주년 1963~2003 350호



◁ 순 서 ▷

- 祝 韓國 地區 承認 - 金晟鎭 연합회 회장(1961. 2월호)
 - 滄桑의 感 - 全用淳 漢陽RC(1961. 2월호)
- 로타리클럽의 國內性 - 金永韶 釜山RC 회장(1962. 12월호)
 - 국제로타리 창립 58주년 기념축사 - 金顯哲 內閣首班(1963. 3월호)
- 제2차 375地區年次 總會총재 인사말 - 黃熙贊 375地區 總裁(1963. 10월호, 창간호)
 - 제5차 375地區年次 總會 致辭 - 朴正熙 大統領(1965. 送年호)
- 로타리 雜談 - 白完基 光州RC 총무(1966~67년호)
- 大邱지역 3개 클럽 봉사활동 - (1966~67년호)
 - 仁川RC 봉사활동 - (1966~67년호)
- 金泉·春川·順天RC 봉사활동 - (1968. 12월호)
 - 375·376 地區 봉사활동 - (1970. 12월호)
- 차기 각 클럽회장 총무에게 보내는 書翰 - 吳善煥 차기총재(1969. 4월호)
 - 南釜山RC 봉사활동 - (1971. 가을호)
 - 서울RC 봉사활동 - (1977. 11월호)
- RI창립 65주년 기념 合同週會 연설문 - 金鍾泌 박사(1970. 3월호)
- 연필 목걸이 - 홍태표 375지구 東春川 RC(1970. 12월호)
 - 코리언 타임 - 鮮于宗源 375지구 南서울RC(1970. 12월호)
 - 믿음이 있고 성숙한 사회로 - 白樂濬 서울RC(1983. 9월호)
 - 生命의 선물 - (1984. 2월호)
- 아프리카 3-H 자원봉사를 다녀와서 - 文柄基 전총재(1984. 4월호)
- 밝힌 자와 밝은 자 - 吳在瓏 전 RI이사(1985. 11월호)
 - 로타리의 女性會員 加入問題 美大審院에서 敗訴判決 - (1987. 7월호)
- RI회장 연설 - 찰스 C. 켈러 RI회장(1987. 11월호)
 - 서울국제대회 청와대 오찬연설 - 盧泰愚 大統領(1989. 6월호)
- 1989년 서울국제대회 - (1989. 8월호)
- 로타리旗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다 - (1989. 12월호)
 - 釜山南浦RC 봉사활동 - (1990. 6월호)
 - 강릉영동RC 봉사활동 - (1990. 2월호)
 - 100歲에 100% 出席! - 李元淳 서울RC 회원(1989. 2월호)
- 서울무궁화RC 봉사활동 - (1990. 11월호)
 - 의료봉사로 일관해 온 삶 - 文昌模 전총재(1991. 10월호)
- 나환자 치료 진료봉사 20년 - 劉東洙 박사(1992. 10월호)
- 光州光山RC 봉사활동 - (1995. 9월호)
- 폴 해리스 묘지 참배기 - 方 炫 전총재(1996. 9월호)
- 싱가포르 국제대회 보고 - 金光泰 전총재(1999. 7월호)
 - 죽은 후에 남는 것은 '베풀었던 것' 뿐 - 朴基億 전총재(2000. 12월호)
- One Rotary Center 紀行 - 朴柱寅 전총재(2001. 6월호)
- 文化觀光 進興, 어떻게 할것인가? - 南善祐 전총재(2001. 9월호)
- 봄철 시베리아 횡단 鐵道 紀行 - 全秉國 전총재(2002. 6월호)
- '대-한민국' 축구선수들이여! - 鄭永煥 전총재(2002. 8월호)
- 로타리코리아 '40年史 刊行' 필수 사업 - 張忠植 총재(2003. 7월호)
- 陶畵 꽃병에 담은 뜻은... - 朴善圭 전총재(2003. 2월호)
 -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눈물로 호소한다 - 金遺腹 전총재(2003. 6월호)
- 9880지구대회 RI회장대리 참가기 - 柳正烈 전총재(2003. 8월호)
- 2009년도 제100차 서울국제대회 결정 - (2003. 11월호)

다시보는
로타리코리아
記事

祝 韓國 地區 承認 - 金晟鎮 연합회 회장

1961년 2월호



聯合會會長 金 晟 鎮

特望의 DISTRICT 承認이 지난 1月 國際로-타리 理事會에서
決定되었다는 喜報가 別項(31P)과 같이 널리왔다

辛丑年 年頭의 큰 무례센트로서 怏怏 慶祝할일이며 卅月華
命以後 新生 大韓 第=共和國의 國威와 實力이 國際的으로 認
定된 証左라 하겠다

昨年 總會席上에서도 이 DISTRICT 指定促進運動을 展開하자
는 問題가 決議되어 各主要都市에 로-타리클럽創設을 慫慂할것과
또 既成 各클럽마다 會員을 增加하도록 勸告하였으나 이렇게 速히
그 成果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나

發足 有効期日은 今年 7月1日부터이며 番號는 DISTRICT
375 名稱은 REPUBLIC OF KOREA 이다

總裁 詮衡委員이 送來하여 GOVERNOR (總裁)를 選出
推薦하여야 하며 그 GOVERNOR 은 5月3日부터 8日間 New
York 市에서 開催되는 INTERNATIONAL ASSEMBLY에
參席하여야 한다

글해야 말로 韓國로-타리聯合會로는 記念 할만한 事다
第52次 國際로-타리總會가 5月28日 부터 5日間 隣邦 東京
市에서 開催되는것은 千載一遇의 好機會로 200餘名 우리 會
員이 參加 할것이며 또 外國로-타리會員이 多數 來韓할 予定
이니 그 歡迎 評次를 疎忽히 하여서는 안되겠다

以上과 같이 多事多端한 行事が 連달아 展開 되겠으므로 會長으로
서 責任을 痛感하고 最善을 다할것을 覺悟하는바이다

會員 諸位는 DISTRICT 承認을 自祝하는 方便 各自가 後
進國家會員으로서 國際的水準에 參映하게된 忖料와 覺悟를

강지밀고 奉仕精神과 굳은信念으로 邁進하여야 하겠다

最近 東京總會 參席問題도 好轉되고있다 卽 各務部長
官을 屢次 訪問 또는 書面으로 陳情한 結果 長官 自身이
ROTARIAN 이므로 會員의 義務로 알고 誠意껏 推進하여
國務委員會議에서 正式으로 提案하여 承認을 얻었다 確
約하였으므로 우리들의 總會參加가 必要한 氏間外交로서 政
策的 歸結이 될것으로 믿는바이며 日本入國査証은 別項
(37P)과 如히 日本外務當局이 ROTARY IDENTITY
CARD 를 VISA 로 認定代行하겠다고 破格의 好意를
배풀어 주었으니 煩雜한 手續節次가 省略될것이다

결므로 會員各位의 積極的인 協調로써 多彩로운 辛丑
年 行事が 有終之美를 거두게 되기를 期約하고 貴會의
發展과 會員여러분의 健康을 謹히 祈禱하는바이다

"DISTRICT 承認에 關한 公翰
(2月31日附 General Secretary)
George R. Means 氏 展信
別項(31頁) 參照

1960년 1월호 - 1961년 2월호

다시보는
로타리코리아
記事

【會員欄】滄桑의 感 - 全用淳 漢陽RC

1961. 2월호

會 員 欄 滄 桑 的 感

友 漢 全 用 淳 (漢 陽)

「漢陽로-타리」의 창터멤버의 한사람으로서 특히「서울로-타리」에서 승준을 몹시 추 裁하고 그 意思를 貫徹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 클럽의 發展相을 볼때에 펴이나 愉快한 感想을 갖게된다 특히 지난 크리스마스파-리 날에는 拜會室까지 쓰게되는 盛況을 이룬것을보고 매우 感慨無量한바가 있었다 내가「서울로-타리」의 會員이 된것은 一九四六年 봄이였으며 正式으로 國際로-타리의 承認을 얻은것은 一九四八年 十月이라고 記憶한다 그때의「서울로-타리클럽」에는 外國人 會員은 없었으며 會員數 三十餘名 程度였는데 國際로-타리 클럽의 幹事가 來聘하였을때 서울로-타리 會員 二十餘名과 우리집 二層에 모여서 會食하던 記憶이 어찌할은티 벌써 十二年이 經過된것을 생각하니 果然「光陰이如矢」라드니 時日의 流逝를 새삼스러히 느끼게 한다 그後부터「서울로-타리」에 韓人 美國人을 비롯하여 外國使節과 商人 經濟人等이 加入되어서 韓國 語를 모르는 會員의 數가 늘게되자 每週 例會에서 韓語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韓語半 英語半으로 始作된것이 次次 英語만 쓰는 로-타리 클럽이 되고 마렸다 나는 당時的 클럽 幹部에게 몇차례나 韓語로 還元할것을 主張하였으나 時間이 너무 많이 걸려서 實質的으로 實行하기에는 困難한 形便이 었다 그러나「韓國서울」에서 모이는「서울로-타리클럽」에서 韓語만을 使用한다는 것은 國家의 體面으로 보나 會員들의 威信으로 보아서

絶對及對峙의 情狀이 情狀이 될수없는 노릇이였다 釜山 離 離 生活를 끝내고 敵京한 지 二年後…… 即一九五五年 여름에 晟堂, 希堂, 友堂, 愚戾(敬) 又石, 石正, 東隱, 友漢等 八人이 提案하여 서울로-타리클럽을 設立 할것을「서울로-타리클럽」에서 議決되고 國際로-타리에 申請해야 承認을 얻은것이 바로 一九五五年 八月달이다 그리하여 그해 九月初에 第一回 會合을 갖고 좋은 同志들을 推薦해서 十名 二十名 三十名式 增加해서 及其也 百餘名의 會員을 갖게되였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當時의 微々하던 우리클럽이 오늘날에 와서 그 會員의 構成으로 보든지 數로 보든지 다른 로-타리클럽보다 優秀性을 자랑할수있으니 창터-멤버의 한사람으로서 痛切한 快意을 많이 갖을수 있다

다만 유감스러운일이 몇가지있는것은 창터멤버로서 又石이 已作 故人하시고 또 友堂이 方今 團圓生活를 하고있는일과 五六年동안에 좋은 會員이 많이 加入되었다가 그분들이 矢推脫會한 길이다 會員 失格된분이 없었더라면 지금쯤은 百五十名 以上の 會員을 갖은 클럽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은 미지 로-타리의 眞心과 意義도 알지없이 失格된 분이 大部分이나 新入會員들에게 우리 로-타리 정신을 더욱 잘 注入된 功로써 서로 切磋의 功이 要請 된다.

韓國로-타리月報 1960년 3월 ~ 1961년 6월